

P - 3

고혈압과 정상혈압환자에 있어서 Na, Ca배설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박정아*, 윤진숙.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식생활학과

식을 통한 나트륨의 만성적인 과잉섭취와 칼슘섭취 부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태성 고혈압 발생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혈압조절에 나트륨 및 칼슘의 섭취와 배설, hormone이 관련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입원환자중에서 정상군 30명과 고혈압군 22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나트륨 및 칼슘섭취량과 소변중의 나트륨 및 칼슘배설량, hormone등을 함께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변중의 나트륨 배설량은 정상군이 고혈압군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소변중의 칼슘과 creatinine비율에 있어서는 고혈압군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트륨 섭취습관을 반영하는 Na Index는 고혈압군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일상적인 칼슘섭취량을 나타낸 Ca Index 또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lasma renin activity, aldosterone, PTH hormone은 두 군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축기 혈압과 PTH($r=0.2597$), aldosterone($r=0.2648$)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5$)가 나타났다. 소변중의 나트륨 배설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은 칼륨배설량($r=0.6947$), 칼슘배설량($r=0.5558$)이었으며 소변중의 칼슘배설량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들은 나트륨 배설량($r=0.5558$), 칼륨배설량($r=0.3806$), Na Index($r=0.3082$)이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트륨 섭취량, 소변중 나트륨배설량과 혈압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별 salt-sensitivity가 다른데 기인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PTH, aldosterone과 혈압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체내 칼슘, 나트륨 조절 hormone의 변화와 혈압조절기전에 대한 후속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